**막0121 Note**

**◆회당의 기원**

<세계기독교박물관 www.segibak.or.kr 기독교자료실>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는 성스러운 나무이며, 그 아래에서 단을 쌓거나 종교적 모임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정정숙 전도사의 성서식물' 중에서).

그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셨고,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매년 3차씩 이 성전으로 나아와 하나님 앞에 보였으며,

성전은 그들의 예배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예배할 장소를 잃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설사 성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거주지역 중심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회당 역사의 시작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려야 했지만,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으로 번제를 대신하였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번제가 필요하지 않은 신약시대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70년후, 유대인들은 드디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번제도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해 오던 방식대로 그들은 회당 예배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예수님도 때로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때로는 회당에 들어 가서 가르치기도 하셨다.

AD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다시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전세계로 흩어져야 했다. 바로 이때부터 회당의 진가는 발휘되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하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었다. 회당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성인식도 회당에서 치렀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회당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오랜 방랑생활을 끝내고 2천년 만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로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히브리어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배경은 물론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이었고, 그 중심에는 토라가 있었다.

예루살렘 뿐 아니라 유대인 컴뮤니티 중심에는 지금도 회당이 존재하고 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례식을 행하며, 성인식도 거행하는 것이다. 절기가 되면 회당으로 모이고, 속죄절이 되면 회당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교인들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를 시작하였다. 바울도 회당으로 들어가 전도하였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회당의 예배방식을 자연스럽게 답습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와 기도시간을 가지는 일이었다.